도 터진 이는 없고, 글 재주꾼과 입 터진 앵무새들만

.....



오래 전 가끔은 쉬고 싶은 마음에 토굴을 찾고자 어느 지역을 가게 되었다.

하루를 보내고 24시 찜질방을 찾고자 택시를 탔는데, 막상 타고 보니 택시 안엔 중년의 보살님 들이 계셔 합승을 하게 되었다. 그 보살님께서 "스님! 어디서 오셨습니까?"하고 묻길래 "서울이요." 하고 답하니 또 묻기를 "여기 어쩐 일로 오셨냐?"고. "토굴 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자 "그럼 언제 올라가시냐?"고 재차 묻는 것이었다.

"내일 낮에 몇 군데 더 보고 저녁차로 올라갑니다."고 말하자 그 보살님께서는 반색을 하시며 "오늘 저녁에 자기네들 신행단체에 와서 법문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하고 부탁을 했다. 출가자는 부처님 바른 정법을 전하는 법보시(法布施)가 최고라 했거 늘 여기에는 수고비가 없는 무주상보시가 되어야 한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수락하고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고 묻자 위치를 자세히 가르쳐 주고는 저녁 0시까지 오시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시간보다 조금 빨리 그 곳에 도착해서 그 곳 소임자들과 차를 한잔하고는 법문을 하고자 법당으로 갔다. 법당이 꽤 컸다. 스님이 나타나자 다 같이 일어서서 예를 올리려고 하길래 "그냥 앉 아 계시지요." 하니 그 말에 그 곳에 모인 분들이 당황하는 것이었다. 이때 소승이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나는 머슴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머슴이 주인을 섬겨야지 주인이 머슴을 섬기는 이런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 앉으시지요." 하니 그래도 삼배의 예를 올려야 된다고 하며 집 전자가 목탁을 치려고 했다. 그때 이 소승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러분! 주인과 머슴이 전도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요. 절에 돈과 온갖 음식과 모든 것을 갖다 주면서 그걸 받아먹는 이 거지가 어찌 상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두들 앉으십시오. 앉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납자가 오늘 부처님 법 전하는 최고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 를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었는데 그에 대한 감사로 재가 절을 해야 마 땅하거늘 어찌 절을 받겠습니까?" 하고 재차 앉을 것을 권하자 그때서야 다들 자리에 앉는 것이었다.

"오늘 이 법당에 들어와 보니 벽 홍보판에 이미 TV나 홍보 매체에서 유명세를 탔던 큰 스님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녀간 일자와 함께 사진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이 소승이 놀랐습니다. (참고로 이 신행단체는 수 십 년 전에 창립하여 불교대학과 교양대학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우선 법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법당에 많은 큰스님들이 다녀가셨기에 참고로 불교의 기초적인 수준에서 묻는 것이오니 진실되고, 진솔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분들답게 답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절 집에 다니면서 사주, 철학, 점을 본 경험이 있는 분 손드세요. (손을 드는 이 아무도 없음)

두 번째, 묻겠습니다. 삼재기도, 삼재풀이 등..... 그에 따른 액막이 용 부적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경험이 있는 분 손 드세요. (전부 고개 숙이고 손을 드는 이 없음)

세 번째, 여러분 불자 맞습니까? 하고 솔직하게 답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신비한 바위, 바위 속 개구리, 우담바라 등이 피었다고 해서 그러한 곳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신 분 없습니까? (고개 숙인 상태로 웃음이 간간이 나옴) **지금까지 이 많은 사람 중에 손든 이가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고기 방생이나 부처님 찾는다고 밖으로 성지순례를 한 번이 라도 갔다 오신 분은 있습니까? (역시 손을 드는 이 없음) **그럼 반대로 고기 방생 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고 그 비용으로 인간 방생이 최우선이라 불우 이웃 돕기에 보시 하신 분 있습니까?**

바깥으로 성지순례하려면 최소 몇 백만원씩 하는데 생각을 바꾸어 그 돈으로 불우 이웃이나 병원에서 수술비가 없어 꺼져가는 생명을 살 리고자 직접 보시 하신 분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이 없음)

또 가족 중에 먼저 간 이가 있어 49재나 천도재를 지낼 비용으로 사회복지 재단이나 장애인 단체, 불우 이웃 돕기에 망자의 이름으로 기탁하신 분 있습니까? (역시 손을 드는 이 아무도 없음)

다섯 번째, 입시기도, 승진기도, 사업번창, 대운기도 등등에 한 번이라도 동참했던 분 있습니까?

여섯 번째, 인등, 합격의 등, 승진의 등 등등을 현재 밝혀 놓았거나 한번이라도 하신 분 있습니까?

일곱 번째, 만년위패, 평생위패를 모셨거나 천도재를 밥 먹듯이 자주 하신 분 있습니까?

여덟 번째, 절 짓는데 불사랍시고 거액을 시주한 사람 있습니까?

반대로 부처님의 정법이 사라지지 않게 학부에 있는 학인스님 뒷바라지를 했거나 학비를 대주는 등 교육 불사에 동참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쯤 되자 장내가 숙연함을 느낄 정도로 조용해졌다.)

전부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법문을 듣고자 왔습니까? 저 홍보판을 보면 많은 큰 스님들이 이 법당을 왔다 갔는데 무슨 법 문을 듣기를 원합니까? 미안하지만 이 소승의 질문 속에 부처님 말씀 이 다 들어 있었는데..... 여러분들 불자 맞습니까? 무슨 얘기를 더 해 주기를 바랍니까?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 등도 크기별로 돈을 받으며, 안에 달면 최소한 50만원 이상, 밖에 달면 10만원, 이것도 부처님 면전에서 부처님이 무섭지도 아니한지요? 또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 생에 부처님 제자 내지는 몇 대 손이라나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건지? 부처님 경(經)과 조사어록에서 정법이 사라진 말세의 한 가운데 와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마왕 파순이 대열반경에서 말하길 부처님 열반 직전에 마왕파순이 나타나서 한 말을 우리는 모두 잊고 있습니까? 마왕 왈 "당신이 가고 나면 나는 내 부하들을 당신의 제자로 위장시 켜가사와 장삼을 입히어 당신이 이룩해 놓은 법당에서 정법과 모든 것 을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절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냉정하게 보자. 방송국 및 언론 매체들을 나무라지 말고 각 사찰마다 정법 불교를 한다고 떠들면서 하는 행위는 이것이 정법 불교인지..... 아이가 웃을 일이다. 정법 수행도 안 하면서 하루 해 지는 줄 모르고 천도재와 몇 십억 짜리 미타 국토 인가증을 파는 잡귀 행사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이 그들만의 일인가? 스스로 불교를 파괴하고 있으니 법력이 없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말로는 엄청난 수행을 통하여 신통 방통을 다 얻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는 짓이란 하룻날 내내 장삿꾼 행상이다.

또 이쯤 시기에 크고 작은 사찰에서 입시기도 한다고 아우성이다. 입시 발원문에 내 아들, 딸들 사진까지 붙여서 부처님 턱 밑에 들이밀 고 있다.

잘 봐 달라고..... 이것이 인류 전체를 위하는 것인가? 지금 절 집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불교의 본질인 자비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기도랍시고 하고 있고, 사찰이 신도를 상대로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지금 한국불교는 무당보다 못한 하급 종교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수능기도, 입시기도, 권선문은 기본이고 사찰 입구 제일 잘 보이는 곳 에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러한 절에서는 글을 모르는 눈 먼 이들만 있는 것인지?..... 이러하니 21세기 지식인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즉에 부끄러운 줄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말로서 도통한 것처럼 떠들지 말고, 입은 굳게 다물고 그 능력(법력)을 보여라! 바르게 수행하면 언젠가는 불, 조사님들의 권능이 생긴다.

삼매 중에 사후세계 중에 지옥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 경지에 까지 간 이가 있다면 비불교적인 행위 (사주, 철학, 관상, 부적, 인등, 삼재 풀이, 삼재기도, 수능기도, 고기 방생, 성지순례 등등.....)는 무서워서 절대 하지 않는다. 다만 화엄에 등장하는 철저한 보현행자가 될 것이다.

지옥세계는 업의 정도에 따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 조사님들은 모든 경(經)과 어록에서 체험을 해서 체득한 것만을 얘기하라고 하셨다.

지난 안거가 끝나고 안거에 동참했던 이들이 0 0 큰스님 친견을 원 하길래 나들이를 했었다. 약 2시간 가량 큰스님 처소에서 법담을 나누며 큰스님의 말씀은 "내가 이제 80이 다 되도록 법을 설하러 전국을 다녔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 체험, 증험한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다.

자, 이쯤에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길에서 조현병 환자나 초기 암, 암 1, 2기 말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은 회생 불가능한 시한부의 생을 사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에 출가인이라면 분명 해답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불세존이나 예수께서 길에서 그러한 환우를 만나면 외면했을까? 길에서 만나지 않더라도 TV나 언론매체에서 특히 인간극장 등..... 에서 시한부 환우가 살아가는 모습과 조현병 환자가 고통 받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그 때마다 이 소승이 있는 절은 신도들이 연락이 온다. TV를 잘 보시라고.....

그 곳에서 방송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바로 신도님들께 전화해서 그곳이 어디인지 책임지고 알아내서 연락을 하라고 한 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기 신도님들과 같이 환우를 만나기 위해 전국을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이다.

방송국은 사생활 문제로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다. TV 화면에 나오는 배경을 바탕으로 대충 찾아서 그 인근에 가서 묻고 물어서 찾아내 어그 집을 찾아 노크하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종교적인 문제로 부닥친다. 다행히 불자이면 마음이 편한데 대부분 환우들이 젊을수록 기독교, 천주교인들이다 보니 첫마디가 기도를 거부하겠다고 나온다. 그래서 미리 신도 일행 분들한테 절대 불교 얘기는 하지 말라고 당부해 놓고 대신 성경 얘기를 하면서 우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 (소승도 학부시절에 0 0 목사님으로부터 비교종교학을 2년 정도 공부 한 적이 있다.)

다행인 것은 신도중에 전도사 생활(서울서 기독교내 어린이 성경교사 도 더불어 했음)을 오래 하셨던 분이 계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설득해서 기도를 받는 확률은 60% 정도 이고, 스님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처음이라고들 한다. 반대로 신부나 목사님은 수없이 많이 다녀갔다고 한다. 불자인 환우도 스님이 처음으로 오시는 거라고 하며 역시 신부, 목사는 수없이 왔다 갔다고 한다.

이 소승은 환우 기도시 신도님들과 같이 다 보는데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신도들이 다 증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한 것이기에..... 최근에 있었던 일은 이름만 대면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분이 오랜 투병 생활을 마무리 하고자 오지에서 요양한다는 말을 듣고 그 곳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 기도를 해주고자 했으나, 그가 불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부 하길래 그냥 돌아온 적이 있다.

지금 절 집에 환우나 조현병 환자들이 찾아오면 무조건 천도재 내지 구병시식만을 하라고 권하고, 그것도 해서 안 되면 또 하고 해서 수 없이 많이 하게 한다. 그것이 수행 끝에 법력 있는 자가 할 일인가? TV에서 보면 TV에 출연하거나 크고 작은 사찰 신도들 얘기는 무조건 자기 스님네가 신통, 방통하다고 선전을 하고, 그럼 직접 보았냐고 묻고, 또 물어보면 역시 소문이지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방송사 기자들 눈에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나? 망신이라도 이런 망신은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수행 끝에 얻은 불가사의한 신통을 보여라. 왜 숨어서 드러내지 못하고 망신을 당하나? 몇 년 전에 JTBC 방송에서 이영돈 PD가 "십대 점술가를 찾아서" 라는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다. 전국 유명하다는 무당, 사주쟁이, 스님 할 것 없이 많이 출연했지만 그들을 보는 순간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그때 여기 대중들이 하나 같이 스님이 출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놈들아, 내가 거기 나가면 나를 사주쟁이 정도로 취급할 것 아니냐?" 하면서 호통을 쳤다. (참고로 본 사찰은 일체 사주, 철학, 점, 관상, 부적, 삼재 등등..... (비불교적인 행위는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불, 조사님은 수행 중에 뭐가 보이거나 사람만 보면 알 수 있 는 그런 경계가 오면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의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하물며 사주, 철학이라니? 그러한 경계를 뛰어 넘어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불경에서 얘기하는 중생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신통이 오는 것이다.

그럴 때도 주의해야 할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 금전을 취하거나, 그 신통으로 명예나 권력을 얻고자 한다면 바로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 그대로 중생제도를 위해 생명을 담보로 그 능력을 보여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법화경에도 일부 그런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한다. "십대 점술가를 찾아서"라는 방송이 끝나고 신도들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현대불교 신문에 어느 방송이던지 제안한다고 하며 그 프로와 상반되게 "십대 성직자를 찾아서"라는 프로를 기획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어느 방송이든 답이 없었다.

어느 종교든 구분하지 말고 전 종교인이 모여서 참수행자답게 과연 가피와 기적이 있는 것인가? 앵무새처럼 말로 하지 말고 실제 보일 수 있게 멍석을 깔아보자.

조건은 정신적 환자 (조현병)와 초기 암, 암 1기, 2기 말고, 말기암 (시한부) 환자, 희귀병 환자를 시술하는 수행 능력 (법력)을 보여주는 참 수행자 대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부탁은 TV에서 입으로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얘기하는 그들을 신통, 방통한 이로 보고 꼭 출연 시킬 것은 당연한 것이고, 소문이 무성한 크고, 작은 그림자들도 다 출연시켜야 할 것이다.

이 사바세계를 마왕 파순의 제자들이 득실거리는 폼새를 두고 볼 수 없기에 다시 한번 방송에 제안한다.

(소승이 있는 본 절은 신도회를 만들지 않는다.)



※ 기도 동참하신 일부 신도님 연락처

1) 010-4807-6032 (박보살님)
2) 010-2526-4365 (김보살님)
3) 010-9707-4808 (박보살님)
4) 010-6786-7495 (윤보살님)
5) 010-3143-5302 (선현)
6) 010-9411-5302 (법혜)

불. 법. 승 정법 실천도량

연 등 사

(선재불교대학)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내)

TEL. 055)633-6555